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이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1~22 EPL 홈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 토트넘의 '왕'

EPL 뉴캐슬과의 홈경기서
1골 1도움... 팀 4위 도약 견인

토트넘, 아스날에 골득실 앞서
4위 경쟁 본격 돌입

한국축구대표팀에서 소속팀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 핫스퍼의 '왕'이었다. 손흥민이 A매치가 끝나자마자 치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위 도약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1~22 EPL 홈경기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이어 팀의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며 5-1 대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며 17승 3무 10패(승점 54)를 기록, 아스날(17승 3무 8패, 승점 54)에 골득실에서 앞서며 4위로 뛰어올랐다.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2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4위 자리가 불안하긴 하지만 이날 4골 차 승리를 거두면서 골득실에서 15-13으로 2골 앞섰다.

토트넘과 아스날이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15승 6무

10패, 승점 51)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4승 9무 7패, 승점 5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황희찬의 소속팀은 울버햄튼 원더러스(15승 4무 12패, 승점 49)는 4위권과 승점차가 적지 않아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경쟁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뉴캐슬에 선제 실점했지만 이후 5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전반 30분 패비앙 세어에게 프리킥을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불과 4분 뒤 손흥민의 칼날과 같은 정확한 크로스를 벤 데이비스가 헤더로 받아넣으며 균형을 맞췄다. 손흥민은 동점골 어시스트로 리그 6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전반을 1-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부터 손흥민,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프스키가 돌아가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뉴캐슬 수비진을 초토화시켰다.

후반 3분만에 케인이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를 멧 도허티의 다이빙 헤더로 2-1 역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후반 9분 콜루세프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손흥민이 침착한 왼발 슈트로 뉴캐슬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리그 14호 골로 디오고 조타(리버풀)와 함께 EPL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18분 에메르송 로알의 득점포로 4-1까지 달아냈고 후반 37분에는 교체 멤버까지 득점 대열에 가세했다. 콜루세프스키를 대신해 출전한 루카스

모우라의 도움으로 에메르송 로알과 교체돼 출전한 스티븐 베르흐바인이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지난 2월 리그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둔 이후 6경기 연속 2골 이상을 넣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6경기 동안 맨유에 2-3으로 진 것을 제외하고 3연승을 포함해 5승을 챙겼다.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 30경기 동안 기록한 52골 가운데 6경기 동안 무려 20골이나 넣었다. /뉴시스

프로농구 PO 미디어데이 7일 개최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 미디어데이가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베르사유홀에서 열린다. 미디어데이에 PO에 진출한 6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해 출사표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KBL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정된 사전 팬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6강 PO에 나설 팀은 모두 정해졌다. 서울 SK, 수원 KT, 안양 KGC인삼공사, 울산 현대모비스는 정규리그 1~4위가 확정됐다. 여기에 고양 오리온,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6강 PO행 티켓을 따냈다.

오리온과 한국가스공사의 순위는 5일 열리는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정해진다. /뉴시스

스포츠선수단 전지훈련 '활발'

한체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선수단, 진안 찾아
대전체육회 역도선수단 등도 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진안군은 국내 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한국체육대학교(셀매팀)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선수단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국체대-진안군-진안군 체육회는 지난해 MOU 체결 이후 업무협약서 이행 내용 중 하나인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며 전지훈련 활성화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을 공고히 한 바 있다.

특히 셀매팀 선수단은 훈련 기간 동안 2021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진안인삼을 섭취하며 체력단련을 실시해 향상 효과와 운동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전체육회 역도선수단을 비롯해 전북체고, 순창고 역도팀 등이 진안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체대 전지훈련 선수단 관계자는 "스포츠 힐링 도시 진안에서 건강과 힐링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모두가 만족했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마이신의 기를 이어 받아 추후 대회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도 한체대 전지훈련 팀 유치로 진안군의 스포츠산업 발전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MOU 협약사항 이행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진안군이 전지훈련지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백승권 전북현대 단장, 일신상 이유로 사임

허병길 대표이사가 단장직 겸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 백승권 단장이 사임했다.

전북 구단은 4일 "백 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단장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없이 허병길 대표이사가 단장직을 겸임한다"고 덧붙였다.

백 단장은 1988년 현대자동차 입사 후 줄곧 울산공장 홍보팀에서 근무한 홍보 전문가로서,



함께했다.

전북으로 소속을 옮긴 뒤 다양한 축구 행정 경험을 쌓으며 단장 자리에 올랐다.

2017년 부임한 뒤에는 K리그 최초의 리그 5연패와 2020년 K리그, 대한축구협회(FIFA)컵 더블 우승 달성 등 전성기를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